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총력

장수군, 전담 TF팀 구성… 기본계획 수립·재원 방안 마련 등 추진

장수군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 실현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군 차원의 전담 TF팀을 구성하는 등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인구감소 지역 6개 군을 공모해 농어촌 주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훈식 장수군수와 군 관계자들은 전북특별자치도 예산과와 농생명정책과에 잇달아 방문해 '농촌기본소득' 추진 당위성과 강한 추진 의지를 설명했고 경기도 연천군에 농업인 수당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경기도청 관계자를 만나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장수군은 이정우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장수군 기본소득 TF팀'(이하 'TF팀')을 신설했고 TF팀은 군 농산업정책과와 기획조정실 등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핵심 부서와 실무진으로 구성됐다.

TF팀에서는 장수군만의 기본소득 추진 방향과 재원 마련 방안은 물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전 과정을 전담하며 주요 역할은 △시범사업 선정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원 확보 방안 검토 △기본소득 모델 구체화 등이다.

특히 TF팀은 정부 정책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장수군만의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을 마련해 시범사업 선정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농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장수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핵심 정책이다"며 "장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통해 '농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최적의 기반을 갖춘 준비된 지역이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장수군 기본소득 TF팀'을 중심으로 행정과 전 군민의 역량을 모아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수군은 기초자치단체의 존립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정부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은 대전 등 인근 도시에서 무주반딧불축제 기동 홍보를 펼치고 있으며 지난 8월 29일에는 대전역과 대전복합터미널에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무주반딧불축제 오세요"

무주군, 대전역·대전복합터미널서 안내 전단 배포 등 홍보

무주반딧불축제 홍보전이 뜨겁다. 무주군에 따르면 대전 등 인근 도시에서 기동 홍보를 펼치고 있으며 지난 8월 29일에는 대전역과 대전복합터미널에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이날 기동 홍보에는 무주반딧불축제위원회 대의원 20여 명이 함께 했으며 '자연특별시 무주로의 힐링 여행,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를 알리는 어깨띠를 두르고 안내 전단을 배포하며 축제를 홍보했다.

사)무주반딧불축제위원회 박찬주 위원장은 "축제 개막을 앞두고 보다 적극 반딧불축제를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라며 "올해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방문객을 맞이하기 위해 임시 시설물 설치는 최대한 자제하고 공공시설물을 활용하기로 하는 등 환경축제의 진정성을 살리는 데 주력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주민 참여 확대와 교통 문제 개선 등 분야에서도 세심한 노력을 쏟고 있다"라고 말했다.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는 9월 6일부터 14일까지 무주군 일원(등나무운동장, 지남공원, 남대천변 등)에서 개최되며, "자연특별시 무주로의 힐링여행"을 주제로 9일간 '반딧불이 신비탐사', '반딧불이 주제관', '친환경 에코관', '반디키즈월드' 등 체험·환경탐사·문화예술·주간경관·야간조명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한 남대천 친수공간에서는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음악분수를 중심으로 별빛 다리와 낙화놀이, 레이저 쇼, 디지털 불꽃놀이가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도 준비돼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나는 반딧불"의 원곡자 중식이 밴드를 비롯한 다채로운 공연팀들과 세계적인 합창단인 하모나이즈 공연도 준비돼 축제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홍삼축제' 특색 있고 품질 높은 먹거리 제공한다

먹거리 부스 사전 품평회 가져

진안군은 오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5 진안홍삼축제'의 먹거리 부스 운영자를 대상으로 사전 품평회를 가졌다.

사전품평회는 지난달 29일 산약초타운에서 열렸으며 축제 현장에서 선보일 다양한 먹거리 부스를 사전에 점검하고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특색 있고 품질 높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된 12개의 음식 참여 부스에서 홍삼을 활용한 음식 등 다양한 메뉴들로 품평회를 준비됐다.

음식 전문가, 축제 추진위원회, 실무추진단, 군의원 등으로 구성된 8명의 평가위원들은 위생관리, 맛, 가격의 적정성, 메뉴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먹거리를 시식하면서 지역 특색, 품질, 포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개선사항을 참여 부스들에게 제시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홍삼 유관기관 조직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열려

진안군은 1일 군청 상황실에서 '진안홍삼 유관기관 조직개선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진안홍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추진됐으며, 그간 각각 운영되던 홍삼연구소와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의 협력·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중복 기능을 최소화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연구 수행기관인 ㈜마인드맵 김미희 대표가 △홍삼산업 현황진단, △기관 통합 필요성 및 기대효과, △통합방안(법인, 인력, 인사, 조직구조), △단계별 실행전략 및 정책제언 순으로 발표했다.

특히 보고회에서는 홍삼산업 관련 기관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일원화된 홍삼산업 육성 및 진흥기능의 강화, 효과적인 재정 효율성 확보, 지역 주민 대상 인지도 및 체감도 제고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안군은 이번 최종보고회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 및 전문가, 지역사회 의견을 종합한 향후 통합 추진 전략을 마련 후 조직·인력·운영체계 전환 등 통합조직의 안정적 운영체계 구축을 실행할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연구용역은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조직의 협업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전략적인 운영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기관 통합을 위한 단계별 실행계획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신규공무원 임용

무주군은 1일 새내기 공무원 25명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이번에 임용된 공무원은 △ 행정 14명 △ 세무 1명 △ 공업 1명 △ 녹지 1명 △ 보건 2명 △ 시설 5명으로 총 6개 직렬 25명이다.

이들은 무주군청 본청, 직속 기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돼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대민 행정을 수행하게 된다.

무주군은 이번 임용으로 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해소할 수 있게 돼 군민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1일 열린 무주군민의집에서 개최된 임용식에서 새내기 공무원들은 복무 선서를 통해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청렴하며 소통하는 공직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공무원으로서 친절과 공정, 비밀엄수, 청렴, 품위 유지의 윤리적 의무를 지키며 군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적극 행정을 실천해 주길 바란다"라며 "여러분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면서 항상 자랑스럽고 보람 있는 공직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전했다.

무주군 새내기 공무원들은 9월 말 '우리군 바로알기'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기본 소양과 군정 주요 업무를 공유하며 신속한 업무 적응과 군민 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에 힘쓸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한국생활개선진안군연합회 회장단, 진안홍삼축제 홍보

진안군은 지난달 31일 광주공항에서 '2025 진안홍삼축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홍보는 한국생활개선진안군연합회(회장 양희연) 회장단이 중심이 돼 오는 9월 26일에서 28일까지 열리는 '2025 진안홍삼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진행됐다.

홍보단들은 홍삼 티셔츠를 입고 축제 리플릿을 배부하며 항공기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진안홍삼의 우수성과 축제 참여를 적극적으로 알렸다.

특히 진안홍삼의 효능과 함께 축제 프로그램을 세세히 직접 소개하며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양희연 회장은 "대한민국 대표 홍삼 주산지로서 진안홍삼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진안홍삼축제를 찾을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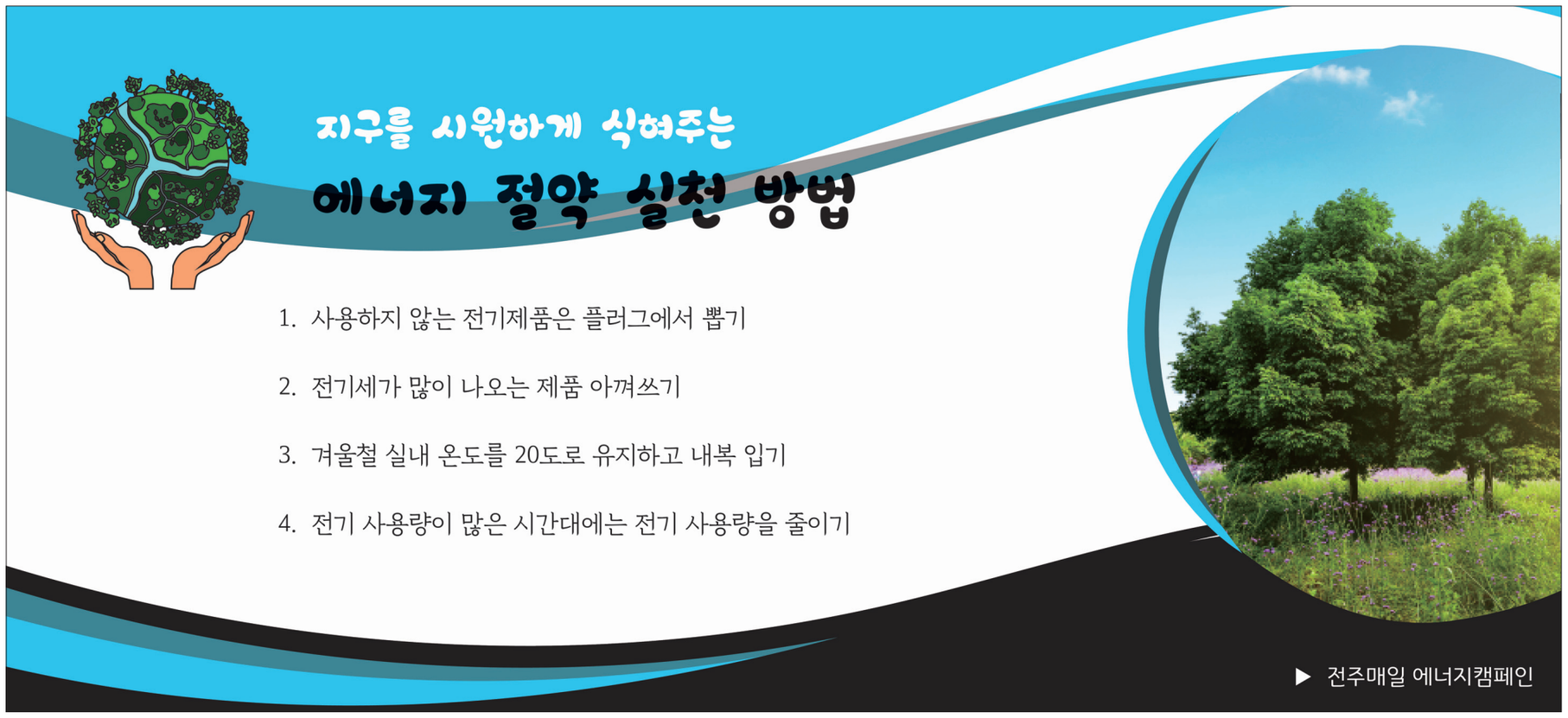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진안군은 관내 주소를 둔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2025년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2025. 9. 1.) 기준으로 △2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관내 중고등학교 모두 졸업 시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주소가 있으면 가능) △2년제 이상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인 대학생이다.

지원 금액은 학년당 1회 100만원이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 시 10월 말 지급 예정이다.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진안군청 가족행복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전춘성 군수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진안군의 역량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